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터.....

예전시스템(주) 개발1실 **염 광 민** 주임



출 생 지 : 경기도 강화
 가족관계 : 1남 5녀
 입 사 : '89.9
 생활신조 : 책임완수
 별 명 : 망둥이, 염소
 주 량 : 소주 반병
 취 미 : 탁구, 볼링

**예전씨시스템(주) 개발1실
염광민 주임**

보일러에서는 사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Controller통 일명 박사다.

“보일러는 컨트롤러를 제외하면 단순한 철판과 파이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보일러의 안전성, 신뢰성 및 다양한 선택기능에 까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느끼고 판단하여 제어까지 가능한 고기능 컨트롤러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9년 9월에 입사, 2년여만에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염

광민 주임이다.

현재 염 주임이 개발한 보일러 컨트롤러는 연료절약 효과와 온수전용모드를 장착한 FF, FE, CF, Boiler Controller와 Boiler Controll System의 기능을 Micon 기능으로 개발하여 다기능 제어와 자기진단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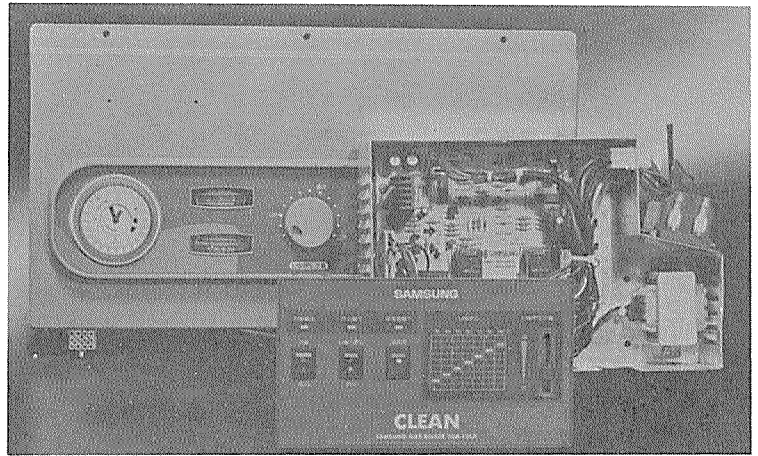
을 가진 인간과 호흡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Micon Boiler Controller 그리고 취침기능, 자동난방기능, 절약난방기능, 외출기능, 자동온도조절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Micom Room Thermo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경기도 강화산으로 주말마다 고향의 할머니와 가족들은 꼭 찾아 뵈는 효자이기도 하다.

어린시절에는 워낙 장난을 좋아해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용한 성격으로 변했다.

“입사할 당시만 해도 내성적 성격이었지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워낙 노래를 못해서 야유회나 체육대회 같은 장소에서



노래시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린단다.

망둥이라는 별명은 입이 커서 친구들이 자주 부른다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으나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단다.

염 주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개발1실 가족들을 살펴보면 정이 너무 많으신 박과장을 비롯하여 서글서글한 정 주임과 남자들만으로 구성되어 분위기가 딱딱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둘러 앉아 토론을 거친 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협동심 또한 뛰어나다고 한다.

회사 자라에 대해 염광민 주임은 짧은 역사에 비해 우리회사는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장님

이하 모든분들이 항상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어 희망에 찬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고픈 여인상에 대해 염 주임은 “저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여성이면 좋겠습니다.”며 살며시 웃어 보인다.

아침에 출근하여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컨트롤러 실험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염 주임, 지금은 완제품으로는 외국기술에 뒤질지 모르지만 부분별 기술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염 광민 주임이다.

바쁜일과 속에서도 틈틈히 시간이 나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항상 품고 지낸다는 염 주임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이 펼쳐지길 빌며 本誌 기자는 발길을 옮겼다.

